

하도리

오미향

수박 화채가 먹고 싶어 꼭지를 딴 수박을 통째로 쥐고 손가락으로 막 끊으려던 참이었다.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기 전 하도리 옛집과 종달리 밭 대부분은 내 앞으로 옮겨 놓았다. 아버지 유언은 들으나 마나라는 생각과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자식 된 도리에서 작은 갈등이 일었다. 특하면 경련이 심하다, 혈압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미음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해서 찾아갔지만, 예상보다 몸을 추스르고 무른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본 뒤로는 정말이지 마지막이다 싶을 때가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는 당부를 병원 측에 남기고 왔었다. 이번이 그 날인지,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지만, 미룰 수가 없었다. 나는 나대로 최근 몇 년간의 크고 작은 일들로 몸을 추스르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마지막 남은 기운을 모아 봤다. 예전처럼 비행기가 만석이어서 변명과 자기 위안을 삼았음 좋으련만 넘쳐나는 저가 항공 탕으로 제주도 가기는 쉬워졌다.

아이를 묻은 지 어느덧 십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시간은 그곳에 멈춰져 있었다. 나연이의 흔적을 지우기에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그때 한 학기 남은 전공 수업은 손에 들어오지 않았었다. 서둘러 제주를 벗어나기에 바빴었다. 뽕뽕 서울서 숨어 살았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남편도 지쳐만 갔다. 어느 순간 주위를 돌아보니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멍해지기도 했다.

중간중간에 어렵겠지만 한 번 제주에 다녀갔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전화를 자주 받았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알겠다. 근데 밥은 먹고는 다니냐. 네 밥은 먹어요. 그러면 됐다. 나도 밥은 잘 먹고 있다.

늘 이런 식이었다. 아버지는 남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서둘러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마치 작전 수행하듯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듯 깔끔하게 처리했다. 군림하고 명령하고 한시도 나를 가만히 놔 주는 법이 없었다. 당신과 떨어져 산 십여 년 동안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긴 호흡을 제대로 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는지. 일종의 승리감이라 하기에는 2 프로 부족한 그 무엇이 있다. 혈육이라는 진한 피 때문일지도 모른다.

여기야, 주란아. 공항 대합실 문이 열리면 누구보다 큰 소리로, 손을 번쩍 치켜들던 아버지가 있을 것만 같아 잠시 서서 둘러보았다. 아버지는 대기선 맨 앞줄 정중앙에 반듯하게 서 있곤 했었다. 그곳은 암암리에 여행사 직원들의 지정석이지만 막내딸을 마중 나온 촌로의 고집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었다. 아버지는 공항까지 늘 마중 나왔었다. 서울서 대학 다니다 방학이 돼서 내려오면 공부 열심히 했냐고 물었다. 숨 돌릴 새도 없이 공항버스 정거장에서 하도리로 가는 버스를 탔다.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를 보고 나서야 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서울서 지낼 만은 하나? 데모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도시물을 먹더니 못 알아볼 정도로 예뻐졌다며 아버지는 입안 가득 어설픈 끼워 넣은 틀니를 보이며 활짝 웃었었다. 여기저기 손님을 환영한다는 안내판을 들거나 지인, 친척인듯한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로 인해 걸음을 빨리 할 수 없었다. 틈 사이를 벌리고 관광객들의 어깨를 밀치며 밖으로 빠져나왔다. 워싱턴니아 야자수는 지난번보다 한 뼘 이상 자라있었다.

요양병원 행 버스는 오늘따라 20분 이상 연착했다. 516번 시외버스는 제주도 동쪽 해안가를 따라 달렸다. 도로를 따라 문주란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다. 문주란의 향긋한 꽃 냄새를 맡자 아버지가 떠올랐다.

이 꽃이 뭔지 아니? 우리집 마당에 활짝 피어나던 문주란을 모를 리 없었다. 아버지가 당신의 목숨인 양 애지중지 키운다는 것도, 내 이름이 문주란인 것도 당신이 지었으면서.

면역이 약해 면회 금지라고 했다. 그러면 왜 오라고 한 건지. 친절해 보이는 남자 간호사는 휴대폰 영상을 보여줬다. 내 아버지 만나 싶을 정도로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기울고 있었다. 모든 게 반쪽이었다. 부리부리하던 코도 매섭던 눈매도, 기다란 장신의 골격도 호두 알처럼 쪼그라져 메말라 있었다. 코에는 호스 줄을 매달고 숨은 제대로 쉬기는 하는 건지. 이유 없이 화가 났다. 왜 이 지경까지 오신 거예요. 혼자 계셨으면 잘살기라도 해야죠. 밥은 잘 먹는다면서요.

휴대폰 영상을 틀어줄 거면 그냥 전화로 보내주심 되잖아요? 분노가 간호사에게 향했다. 아 그게 그게요. 어르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면서 꼭 따님이 오셔서 들어줬으면 해서요.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셨어요.

“미 미안하다. 나연이가, 나연이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는, 나는 이제…… 나연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 그날 내가 유족사무실에 들렀다 가지 않았더라면, 오사카 문과 말 싸움 하지 말았어야, 내가 저졌으면…… 유족 일, 중

친회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디 못한 공부도 마저 하고…… 나연이도 좋은 데 갔을 거라…… 주란아. 내 딸아.”

아버지를 닮아 선명한 쌍꺼풀에 내려와 앉는 울음의 무게를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사과하고 싶었던 걸까. 부탁하고 싶었던 걸까. 아버지는 아들도 아닌 내게 하도리 제사에 맞춰 오게 한 것이다. 여러 가닥의 호스 줄을 여기 저기 매달고 있는 모습만을 네모난 유리창을 통해 봐야만 했던 것에 비하면 아버지의 얼굴은 환자 그 이상의 결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 듯했다. 병이나 죽음, 운명 그 위에 존재하고 있는 아버지만의 남다른 가치관이 보이는 것 같았다. 괜히 입었다 싶은 거추장스러운 위생복을 신경질적으로 벗으며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언제부터 내렸는지 모르게 길 가 웅덩이에 빗물이 가득했다. 비 맞은 나뭇잎이 축 처진 채 신음 소리도 못 내고 날씨를 견디고 있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여기서 1시간을 더 가야 하는 하도리로 향했다. 비가 와서 그런지 하도리행 버스에는 나와 아주머니 두 사람만 있었다. 습기를 잡으려 세계 틀어놓은 에어컨 탓에 갑자기 추위가 몰려왔다. 냉방에 대비해 가져온 흰색 카디건을 걸쳐도 밀려드는 한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 지긋지긋한 하도리. 나는 왜 거기서 태어났을까. 빗소리를 들으니 다시금 아버지 생각이 났다. 지금 하도는 빗소리만 거리와 지붕을 덮을 뿐 정적일 것이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 집 저 집 제사가 아닌 곳이 없기에.

자정이 되어야 제를 지낸다. 일찍 도착해 봐야 질문에 답하기도 어색하고 똑바로 친척들을 마주 보기도 쉽지 않은 일이어서 부러 느끼게 움직였다. 아스팔트 바닥에 구멍을 낼 것처럼 요란하게 퍼붓던 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히 개었다. 작은집에 가기 전, 전에 살던 집을 둘러봤다. 하도 친가는 옛날 모습 그대로였다. 방치된 집은 한쪽 돌담이 무너질 듯 위태위태했다. 문패는 거미줄이 슬다 못해 좀이 쓴 것처럼 아버지 존함 세 자가 희미하게 보였으며 ‘6.25 참전 용사의 집’이라는 명패만 그 옆에 쓸쓸히 매달려 있었다. 문틈으로 들여다본 마당에는 화초들이 말라 비틀어진 데다 비까지 맞아 축 늘어져 있었다. 자리 젖갈을 담았던 항아리는 보이지 않았다. 뒷마루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당 한구석에는 사방치기 빗금이, 바지랑대에는 갈중이 몇 벌이 주인을 잃은 채 중심을 못 잡고 걸려 있었다. 대문을 도로 닫고 옆 골목으로 들어섰다. 향내가 훅 몰려왔다. 하도리 어느 집 문을 열고 들어서도 비슷비슷한 제사상이다. 그중에 오늘이 가장 향이 많이 피워지는 날이다. 4.3사건 때 한바탕 소탕이 벌어져 온

마을이 소개되다시피 한 날이었고 가장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났던 날이었다. 작은집에 들어서자 잘 차려진 제사상이 마루 한가운데 보였다. 보릿가루에 술찌개미를 넣고 둥글납작하게 빳은 약개떡은 원혼을 달래기 위한 곳을 할 때 빠지지 않고 올리는 떡이다. 옛날 할머니들은 정성껏 떡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예쁘게 빳어야 좋은 데로 갈 수 있다고 믿어서였다. 고사리 한 가닥을 달걀지단 중앙에 올린 전. 동부콩 양금을 넣은 만든 우주비행선을 닮은 송편. 갓 잡은 싱싱한 옥돔을 넣고 끓인 미역국. 당일바리라 불리는 해풍에 말린 꼬들꼬들한 반건조 옥돔구이, 늦그릇 사발은 얼마나 큰지. 일생동안 먹어야 할 분량을 반도 못 먹고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그런가, 꺾꾹 눌러 담은 곤밥(쌀밥)이 젓상 정중앙을 차지했다. 그리고 아직도 어두운 표정의 친척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다.

작은할아버지께 양자로 입적된 영수 삼촌은 누구보다도 반갑게 내 손을 잡았다. 형님이 외동딸인 주란이를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제사에 참석한 걸로 할 도리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삼촌은 아니었나 보다. 삼촌은 작은할아버지 과수원이 탐나서 호적에만 양자로 올렸다는 소문이 친척들 사이에서 한동안 돌았었다. 아버지가 최근까지 작은할아버지 제사를 모시다 병원에 들어가면서 영수 삼촌이 넘겨받았다. 삼촌은 최근에 홈쇼핑에 하우스 감귤을 납품하면서부터 목소리가 커졌다고 했다. 언젠가 나보고도 서울에 있는 그 방송국에 찾아가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삼촌이 인터넷에 서툴러서 그런다고 하면서. 그 부탁을 들어줬는지 아니었는지 기억에 없다. 안부가 오가고 굴 값이 폭락해서 힘들다는 신세 한탄으로 친척들은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들어설 때의 심각함은 대화를 나누자 언제 그랬냐 싶게 성토장이 돼버렸다. 제주도 지사가 중앙정계에서만 활동하다 고향으로 내려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제주도 사람이라면 웬당(넓은 의미의 친척, 이웃사촌)을 알아야 할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제사 문화를 모르고서는 제주 사람을 이해 못 한다면서 지식만 가지고 덤벼드는 꼴이 우습다고 했다. 음복을 과하게 한 삼촌이 나를 보며 말했다.

“어떻게 지낼 만은 하니? 힘들지? 그래도 내려야 줘서 고맙다. 힘든 건 알지만 아버지를 이해하렴.”

삼촌은 아버지는 4.3사건 때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인물이며 6.25 전쟁통에 사지로 뛰어들어 소임을 다하고 영예로운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아버지가 아니었음 하도리 제삿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유족 연금을 받게 해 준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거듭 말했다. 삼촌

은 이쪽저쪽으로 보상을 겹치게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서 그 점을 고마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삼촌, 작은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구박한 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아버지가 열 대 여섯살 무렵 할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밀항했다. 혼자 남겨진 아버지는 작은집에 맡겨졌다.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했다. 살기 어려운 때라 작은어머니 시선이 곱지 않음은 분명했을 터였다. 할머니가 대판(오사카)에서 번 돈은 고스란히 작은집에 전해졌다. 그런데도 알게 모르게 아버지를 구박했다. 아버지 밥에만 계란 프라이가 없었다. 어렸을 적 내가 반찬 투정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아침마다 이 얘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계란 프라이도 없어서 못 먹었다고. 지금은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닌데 옛날 친척분들은 먹는 게 전부였는지 제사상 가득 산해진미로 가득했다. 사람을 추억하고 기린다는 의식이 정신이나 영혼이 아닌 먹는 것으로 대변되던 세상, 내 전 세대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였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아버지는 가끔 신문을 보다가 전쟁 기사가 나오거나 길을 걷다가 사건 사고를 목격하는 날이면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갑자기 온몸에 경련을 일으켰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포성과 총성, 폭발음이 당신 곁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했다. 너도 보지 않았냐고, 들리지 않냐고 하면서. 요양병원에서도 어떤 감각에도 미동을 안 하는데 오직 폭발음 비슷한 것에는 격하게 반응한다고 간호사가 말했다. 직업군인이었던 아버지는 늘 6.25 무용담을 입에 담고 살았다. 어린 나를 무릎에 앉히고 당신이 살았던 역사의 한 페이지 페이지를 입에 침을 발라가며 소상히 들려주었다. 아버지는 전쟁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사셨다. 아버지가 자주 해 주던 얘기 중에는 유독 화염에 대한 장면이 많았다. 특히 작은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도 들어 외울 지경이었다.

햇살이 눈부시던 날. 소년이었던 아버지는 하릴없이 땅바닥에 뱅뱅 원을 그리며 놀고 있었다. 다리가 불편했던 작은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오며 작은어머니보고 빨리 숨으라고 했다.

“무슨 일이래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여. 공비가 그 무시기 토벌댄가 뭔가가 우리 마을로 몰려온다고. 빨리 숨어. 그놈들은 아무라도 다 때려잡는다고 안 까봐.”

“어유 이를 어째요. 재게 숨어야겠네. 순자야 영식이 다 들 어딴냐? 빨리들 나오너라.”

“여깁어요”

“그래 순자는 여 있네. 영식이는, 영식이는 어딴냐?”

집안이 난리법석이었다. 장독 곁에서 놀고 있던 아버지를 부르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우당탕탕 옷가지를 챙기고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는 작은 어머니 모습이 보였다.

“야, 너 영식이 못 봤냐?”

“저기 친구 경수 집에 간다고 했는데여.”

“아이구 이를 어찌, 너 재계 가서 개 좀 붙잡고 오니라. 퍼뜩

또래보다 월등하게 키가 컸던 아버지는 달리기도 잘했다. 마을 어귀에 있는 팽나무까지 부리나케 달려갔다. 마을 공동우물이 있던 이장님 댁 가까이 갔다. 그 옆집이 친구 경수네였다. 영문도 모른 채 영식이 형은 달려왔고 작은 집 모두는 우영 밭 뒤로 도망갔다. 집 뒤에 나지막한 동산이 있는데 그 언저리 어디께 작은 헛간이 있었다. 지형상으로 산허리를 파고 들어간 반지하 모양이어서 입구를 작물로 에워싸거나 허드레 가구들로 막아 놓으면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거기로 숨을 작정이었다. 아버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머뭇거렸다. 자신에게 같이 따라오라는 말을 못 들은 아버지는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 조용한 시골이 흙먼지를 날리며 트럭에 실은 돌덩이들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가까이에서 물려왔다. 아버지는 담벼락 가까이 높게 쌓아 둔 벧짚단 속으로 숨어들었다. 속에 있던 짚 더미를 파내고 입구를 안에 있던 벧짚으로 단단히 막았다. 숨을 죽였다. 귀를 막았다. 다다다다, 팡팡 우르르 팡팡, 뭔가 소란스런 일들이 벌어졌다.

“무시기 벌써 다 뛰었나. 집 안 구석구석 살살이 뒤져 보라우.”

“멀리 못 갔을 겁니다.”

토벌대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날뛰던 그 사람들은 민간인 아무나 붙들고 행패를 부렸다. 심지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고 가두기까지 했다. 이유도 없이 민간인들을 죽였다. 악명 높기로 장안에 자자했던 부대가 수색한다는 명목으로 작은집까지 덮친 것이다.

“어딘가 꼭꼭 숨었나 봅시다. 아무 데도 없습시다.”

“이런 새끼들 봤나. 야 싸질러 버려. 집에다 불 지르라 우.”

주변 어딘가에 숨었을거라 생각하고 불을 지르면 사람들이 나올 줄 알았나 보다. 초가집이 순식간에 타들어가고 매켄 연기가 하늘을 덮어도 개미 새끼 하나 보이지 않자 무리들은 떠날 채비를 했다. 연기가 벧 짚단 사이로 들어왔다. 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면서 입을 꼭 틀어막았다. 빨건 화마가 벧 짚단

사이로 울렁거렸다. 이러다가 불이 옮겨붙으면 자신 목숨도 위태로웠다. 대장인 듯한 사람이 말했다.

“야 이걸 뭐야.”

“초가지붕 위으려고 모아둔 새며 짚단 쌓아 놓 겁니다.”

“이봐 무기 하나 이리 쥐 보라우.”

집에 불을 붙여도 사람 인기척이 없자 대장은 갑자기 벧 짚단에게 분풀이라도 하듯 여기저기 찢러댔다. 바로 아버지 오른손 옆으로 대검이 쑥 들어왔다. 아버지는 입을 막았다. 또 한 번 자신의 옆구리로 날선 검이 순식간에 들어왔다. 아버지의 몸은 이제 굳어져 꼼짝할 수가 없었다. 벧 짚단 속 아버지는 푹푹 들어오는 대검을 이를 악물고 피했다. 뜨거운 열기가 스며들었다. ‘아 어머니, 어머니는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가셨나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불이 붙어가던 짚단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마당에 핀 문주란이 얼핏 보였다. 화마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하느라 배배 꼬여가면서도 꽃 얼굴을 떨어뜨리지 않았던 문주란 줄기의 생명력이 느껴졌다. 밖에는 무장 세력에 대한 두려움과 불길이 난무하고 안에는 홀로 남겨진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 후드득 빗소리가 들렸다. 조금씩 내리던 빗줄기는 어느새 벧 짚단에 축축이 스며들었다. 이어서 장대비가 쏟아지는지 온통 빗소리뿐이었다. 뜨겁던 불길이 조금씩 수그러지는가 싶더니 빗줄 또한 큰 비에 무너져 내릴 듯 몸이 무거워졌다. 아버지는 순간 정신을 잃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굵은 장대비는 그칠 줄 몰랐다. 아버지는 이렇게 목숨을 부지했다. 깨어나 보니 집 전체가 축대밭으로 변해 있었다. 처참하게 소개돼 있었다.

“벧 짚단 사이로 스며드는 문주란 흰 꽃이 나를 집중시켰어. 반드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었거든.”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헛간으로 달려갔다. 거기도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뒤였다. 뒷동산으로 불길이 번졌던 자국이 있었다. 남아있던 잔불이 다시 불붙을지도 몰랐지만 불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작은아버지를 업고 걸어 나왔다. 작은아버지는 고맙다는 말 대신에, 너만 살겠다고 뛰쳐나와, 키워 준 은혜를 배신하는 거냐, 고래고래 소리를 내질렀다고 했다.

친척들은 돌아가며 잘 왔다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누구도 나연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이걸로 애도와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할 말이 없어진 그들은 습관처럼 아버지가 살아 온 발자취와 공적을 얘기했다.

이미 아버지께 수없이 들은 무용담이었다. 빗발치는 전쟁터, 사방에 울려 퍼지던 폭발음, 살아남기 위해 전우의 주검을 밟고 일어서야 했던 그 피눈물 나는 이야기들. 근데요, 삼촌들, 그거 아세요. 지금의 내가 그 전쟁통에 서 있다고요. 아버지는 살아 돌아오시기라도 했죠. 나연이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제사는 막바지를 향해 다가갔다. 헌작(獻酌) 후에는 메의 뚜껑을 열어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은 적에 올려놓는다. 송편에 올려놓은 젓가락을 내린다. 두 번 절한다. 차례에 사용했던 지방과 축문을 불사르면서 차례는 끝났다. 어렸을 적부터 좋아했던 빙떡 하나를 집어 들었다. 메밀로 부친 피에 가늘게 채 썬 무에 당근과 파로 양념한 속을 넣고 빙빙 말은 떡이 껄끄러웠다. 메밀가루가 툭툭하니 명치에 짝 막히는 것 같았다. 매캐한 향내가 계속 있다 보니 어지럽다 못해 머리에 향이 꽂힌 기분이었다.

하도리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시외버스를 탔다. 최근 제주시 북촌 어딘가에 들어선 너븐숭이 기념관은 제사 다음으로 들러야 하는 곳이었다. 아버지의 부탁이었다. 당신은 기력이 다해 기념관이 생기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나만은 꼭 봤으면 했다. 아버지는 식물인간이 되어 백 세 가까이 숨을 보존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원수지간이다. 그 누구도 이 원한을 풀 수가 없다. 아버지의 유언 아닌 부탁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어찌면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기 전에 풀기 싫은 과제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그곳은 현대적인 냄새로 가득했다. 뭔가 애환이 서리고 정숙해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는 회색 콘크리트로 마감한 외장재며 멋스럽게 흘러 쓴 필체 등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졌다는 느낌이 전해졌다. 최근 들어 정부는 과거 묻혔던 역사의 현장을 재발굴하고 재인식하면서 새역사 바로 알고 만들기 사업을 펼치면서 기념관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뒤편으로는 파도 소리가 오후의 나른함을 깨웠다.

입구 오른쪽에 어린 영아들의 무덤터인 응덩이가 있었다. 그 앞에는 사람들이 놓고 간 그림책이며 장난감, 과자 봉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북촌초등학교 입학 축하’라는 팻말이 달린 책가방도 보였다. 신발주머니에 프린트된 만화 속 주인공이 개구져 보였다.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날씬한 인형 하나가 많은 장난감 사이로 언뜻 보였다. 나는 십여 년 전으로 빠르게 돌아간 나 자신과 마주해야 했다. 소름이 돋도록 아름다운 이 인형은 나연이가

갖고 놀았던 것과 같았다. 내게는 금기 목록 1호였다.

“울지마 나연아. 엄마 곧 올게. 착하지, 울 아가.”

나연이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얻은 딸이었다. 결혼 후 번번이 임신에 실패한 나는 그 아픔을 잊기 위해 뒤늦게 대학원에 입학했다. 제주도 말테우리 역사와 의미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면서 임신 사실을 알았다. 육아와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 하고 불안과 초조감만 증폭되던 날들이었다. 박사과정 논문을 통과 시키기 위해 막바지 공부에 열을 올렸다. 하필이면 전날 나연이의 목감기가 심해졌다. 약을 먹고 재웠는데도 한밤중에 일어나보니 이마가 펄펄 끓었다. 아스피린을 반으로 쪼개 먹여도, 물수건으로 계속 닦아내도 열은 잡히지 않았다. 꼬박 밤을 새고 다음날 서둘러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잠든 줄 알았던 나연이가 나를 멍뚱멍뚱 쳐다보더니 울음을 터트렸다.

“하비가 오실 거야. 우리 나연이 얼마나 컸나 안아 줄 거야. 하비랑 나비잡으러 가야지?” 할아버지라는 당근으로 구슬려 나연이를 떼어놓을 심산이었다.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공부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감당이 되지 않아 친정이 있는 제주도로 내려갔다. 서울서 혼자 지내야 하는 남편의 불만이 있었지만, 잠시라고 생각했다. 나연이는 돌이 지나자마자 걸음마를 뺏으며 기저귀도 갑갑한 듯 잡아당겨 빼버렸다. 스스로 오줌을 가렸으며 아기 변기에 앉아 눈을 찡끔 감으며 힘도 잘 썼다. 분유를 떼고 생우유를 마셨다. 혼자서도 잘 놀았으며 누구에게나 방긋방긋 잘 웃어서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어려움은 없어 보였다. 앞으로 남은 한 학기, 그 마지막을 장식하던 여름이었다.

나연이를 돌봐주던 이모는 오전에 와서 집안 살림을 어느 정도 해 주고는 점심시간 이후에는 친정아버지께 나연이를 맡겼다. 아버지는 평소 기저질환과 당뇨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했지만 정신력은 강했다. 아버지의 건강이 염려돼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연이를 돌봐주었다. 아버지는 열과 성을 다해 나연이를 돌봤다. 베란다 한쪽에 신문지를 펴서 모종삽으로 흙을 만지게 하고 철 따라 피는 작은 꽃을 화분에 심었다. 이건 데이지고 이건 여름에 피는 거고 이건 엄마가 좋아하는 베고니아라며 꽃 이름을 알려줬다. 나연이를 유모차에 태워 시장 구경 가고 놀이터에 데리고 갔다. 동네 아이들은 나연이 할아버지를 만나면 옛날 얘기를 구수하게 잘 들려준다며 곰방대 할아버지라 불렀다. 그들

은 삼삼오오 모여앉아 아버지의 옛날얘기를 귀를 활짝 열고 경청했다. 아버지는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재주가 있었다.

그거 아냐고? 나연이 장례를 마치고 나오는데 영수 삼촌이 말했다. 아버지가 나연이를 데리고 가끔 4.3사건 진상위원회 모임이나 유족회 사무실에 드나들었다는 사실은 의외였다. 아버지는 나연이를 돌보는 틈틈이 버스를 갈아타고 서귀포까지 왕복했다. 4.3사건이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국가에서도 사료를 바탕으로 인력과 모든 노력을 하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가 관여할 일이 없어 보였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지금 나연이는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토록 매달렸던 안건은 해결이 됐을까.

아버지는 의협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남평 문씨 종친회 간사를 역임하기도 했었다. 지금은 연로하셔서 간사직을 넘겨주고 고문 역할로 가끔씩 종친회 사무실에 나간다. 종친회라는 게 남평 문씨 집안의 뿌리의 내력을 한자를 섞어가며 많이 알고 있음을 과시하는 자리였으며 세상이 변했다고 호가 땅에 떨어졌다며 성토했는 자리였다. 한물간 어른들에게는 당시의 영광을 누리하고자 하는 권력의 암투장이었다. 종친회장이 되려면 큰돈도 써야 했다. 아버지는 간사로 만족하지 못하고 회장직에 도전했다. 아버지가 살아온 연혁이나 공로로 볼 때 충분히 자격이 되었다. 그런데 복병을 만났다. 오사카 문이라 불리던 제일교포였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아버지에 비해 상대는 거물이었다. 그는 오사카 제일교포사회에서 이미 신화적 존재였고 말년에 고향에 내려와 봉사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아낌없이 물질공세를 퍼는 그에게 회원들이 하나, 둘씩 매수 당했다. 위기를 느낀 아버지는 무리하다시피 일일이 종친회 회원을 만나러 다녔고 마음으로 호소했다.

“아 그 오사카 문인가 뭘가는 비겁한 자야. 남들은 그 전쟁통에서도 피바람을 맞아가며 가문을 지키고 마을을 지켜왔어. 죽음으로 항변했지. 근데 그자는 아니야. 비겁하게 일본으로 도망가서 자신의 영욕만 달성했잖아. 돈을 많이 벌었다구? 그자가 어떤 일로 돈을 벌었는지 알면 놀랄걸.” 아버지는 사사건건 대답했다.

“그거 다 면피야. 제일 교포사회에선 그자는 넘버 투야. 야쿠자에 빌붙어 어려운 교민들의 등골을 빼먹었다네. 늘그막이 봉사는 무슨, 사회 환원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라네. 잘 생각해 보게나. 난 자네들의 신념을 믿네.”

아버지는 할 일이 남았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꼭 한 번 회장을 해야 한다며 읊소했다. 오사카 문은 그대로 지켜보지 않았다.

“문 간사님은 애국병에 걸린 환자예요. 자신이 아니면 역사가 안 돌아간다는 믿는, 아직도 그 시간, 그 장소에 갇혀서 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 속에 갇힌 군인을 뽑으시겠습니까? 넓은 물에서 시대의 흐름을 배우고 온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도리에 필요한 게 뭐죠? 아, 마을 도서관도 필요하고 노인정도 신식으로 수리해야 한다구요. 걱정 마십시오. 저 오사카 문이 해드리겠습니다.”

능글능글하게 받아치는 오사카 문에게 아버지는 그래도 굽히지 않고 소신대로 밀어붙였다. 공부하느라 신경 쓰지 못했는데 나연이만 성의껏 돌봐주기로 약속했던 아버지가 몰래몰래 종친회나 유족회에 적을 두고 있었다니. 철석같이 믿었던 아버지가 당신이 하는 일 사이사이 남는 시간에 나연이를 봐줬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몸도 성치 않은 아버지가 그 멀고 어려운 발걸음 할 때마다 나연이를 데리고 다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한창 호기심 많고 손에 닿는 것은 뭐든 만져보고 사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씩 알아가던 나연이에게 할아버지들과의 만남, 흡사 전투장 같은 풍경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 늦게 들어오는 나를 향해 얼굴을 만지며 뽀뽀하다가도 씻고 나와 보면 어느새 잠들어버렸던 나연이. 아버지와 낮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잘 뛰어놀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강행군을 하고 있었다니. 아버지에게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를 수가 없었다.

장례식에서 만난 오사카 문은 유달리 목소리가 컸다. 숙연해야 할 분위기에 아랑곳없이 기운 내라며, 살다 보면 이보다 더한 아픔도 있을 거라며, 초반에 한꺼번에 다 맞았다고 생각하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내게 건넸다.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이 사람아, 자네 여기 언제 왔나? 어서 썩 꺼지게. 여기가 어디라고?”

불같이 화를 내는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내게는 그날, 그 시간에 항상 한두 시면 오던 아버지가 왜 늦었는지. 이모는 하비가 곧 올 거라며 나연이를 혼자 두고 가버렸는지. 그날따라 나는 왜 전 화기를 멀리 두었는지. 풀리지 않는 심사로 속이 비틀려 있었다.

한때 지난했던 아버지 이야기, 혼자 안고 있기에선 벅찬 감동스런 이야기들을 적어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다. 아버지의 연대기나 자서전 정도로 엮어서 출판까지 고려해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연이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는 무의미한 일이 돼버렸다. 시대의 산증인이면서 타의 귀감이 된 아버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지 몰라도 손녀를 잃게 한 아버지의 죄는

용서받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책상 위에 앉으면, 면회를 끝내고 돌아가려다 별이 잘 드는 공원 나무 탁자에 앉아서, 서울행 비행기 기내 테이블을 펼치고 한 줄 한 줄 아버지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연이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게 아버지의 일이라도 적어 내려가야 정리가 될 것 같았다. 아버지는 정말 나연이를 사랑하긴 한 걸까. 나연이를 그렇게 내버려 두면서까지 지켜야 할 게 무엇이었는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아이를 잃은 내가 고통의 색깔은 다르더라도 당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잡기를 바라신 걸까. 당신의 부주의함이 오해였음을. 원망과 미움을 조금이라도 늦춰 보려는 것일까. 당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러나 나연이가 없는 삶은 내게는 아버지가 살아냈던 전쟁의 무게보다 더한 암흑이었다.

창문 사이로 한낮의 햇살이 스며들자 빛바랜 자료들이 세월의 두께를 끌어안듯 묵직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지나간 아픔이라기에는 와 닿은 느낌이 없었다. 우리는 잠깐이었지만 교련 시간에 사열식을 했고 구급낭을 메고 간호병 연습까지 했다. 반공 수업도 받았다. 하지만 내게는 아버지와 그 윗세대 할머니로 연결되는 그 지점, 딱 그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1948년 8월 경, 북제주군 하도리의 양민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다는 그 문구 행간에, 아버지의 족적도 저기 어느 한 줄에 들어있지 않을까. 아버지는 살아남았기에 그 비운의 역사를 증언했으리라. 무덤덤하게 한 바퀴 둘러보고 나왔다. 바깥은 역사의 아픔 따윈 관심 없다는 듯 햇살은 눈부셨고 나무들은 싱그러워 보였다.

잘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이곳이 학살의 터라는 게 믿겨 지지 않을 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감각이 무디어졌는지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나무 탁자가 보여 앉았다.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었다. 백팩에서 노트를 꺼내 지금의 이 느낌을 적었다. 아버지를 떠올렸고 죽은 나연이를 그려봤다. 이곳을 찾은 것만으로 아버지와 나의 반목과 애증이 사그라질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외국에서는 애도가 일상처럼 자연스레 죽음을 추억하고 기리며 함께 하는데, 아직 우리의 사고는 죽음에 넘볼 수 없는 의미와 가치, 철학을 부여하는 것 같다. 하물며 억울하게 아무 죄 없이 희생된 사람들이라면. 누군가가 나뭇가지마다 조그만 쪽지 하나씩 내걸어 놓았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그 아픔을 기리겠다는,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나씩 문구를 읽어가며 숲속으로 들어가니 널따란 터가 보였다. 여기저기 기다란 돌 들이

누워있었다. 현기영의 ‘순이 삼촌’의 대사나 단락들을 돌판에 새겼다고 했다. 일종의 비석인 셈인데 바로 세우지 못하고 애도하는 마음에서 놓였다고 했다. 땅의 기운을 받아 영면하라는 의미로 돌판에 누운 사람들. 그 중의 나의 먼 친척의 친척, 그 친척의 지인이 있지 않았을까.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저 이름 없는 돌판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을 붙들고 있었으리라. 마지막까지 남아, 집을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육신이 타들어 간 뒤에 남은 돌판은 속울음을 긴긴 세월 동안 안고 있었으리라, 그 영겁의 세월 동안 돌의 고통은 어떠한을까.

한참을 누워있는 비석들을 바라보다 남은 산책로를 사철나무를 따라 걸었다. 어느덧 해가 누엣누엣 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널어 둔 빨간 고추와 산나물의 물기를 죄다 빨아들이듯이 내리쬐던 8월의 햇살이 제 몸의 열기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서서히 감추고 있었다. 비껴선 햇살은 영아들의 웅덩이에도 드문드문 비쳤다. 받아쓰기 노트의 한 쪽 귀퉁이가 그늘져 있다. 웅덩이 깊이가 한층 더 깊어만 보였다.

아버지,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가 보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요? 왜 이곳을 보고 오라고 했는지. 아버지가 힘들게 얘기를 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막연히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저만치 장난감들 사이에 누워있는 바비인형, 그 인형의 눈부신 자태가 서늘해 보였다. 손을 뻗어 인형을 쥐었다. 풍성한 노랑머리를 몇 차례 쓰다듬었다. 품에 가만히 안아보았다. 음지에 놓여 있어서 그런지 차가운 감촉이 밀려왔다. 어느 정도 나의 온기로 인형이 덥혀지자 다시 내려놓았다.

북촌초등학교 앞에서 516번 버스를 기다렸다. 수박을 잔뜩 실은 트럭이 앞서 달리고 있었다. 단단히 여민 틈새를 뚫고 수박 하나가 떨어져 나오더니 아스팔트 위에 산산이 부서졌다. 붉은 기운이 포도에 스며들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의 혈압이 40 가까이 떨어졌다고 했다. 어제 오전에 봤을 때만 해도 평온해 보였는데, 갑자기 왜요? 워낙 연세가 있고 지병이 있다 보니 그럴 수 있어요. 가까이 계시면 빨리 와 주세요. 담당 간호사는 급박함의 정도를 지나쳐 차분히 알려줬다. 흔히 있는 일이라는 듯이.

빠르게 달리던 택시를 향해 손을 급하게 흔들었다. 택시는 과열음을 내며 멈췄다. 기사님, 하늘 요양병원이요. 빨리, 빨리 가 주세요.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을 꼭 쥐었다. 택시는 널브러진 수박을 짓몽개며 속도를 올렸다. 아버

지, 조금만 조금만 더 버티세요. 말해주세요. 아니 말씀 하셔야 해요. 뭐든 말 해 주셔야 해요. 이정표는 목적지 가까이 접어들었음을 알렸다. 눈물이 앞을 가려 표시판이 뿌옇게 보였다.

아버지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도리가 한없이 멀어져갔다.